

그림에게 말 걸기 9

그로테스크를 그리다 _ 히에로니무스 보스

글. 남우주 그래픽 디자이너 / 무지크바움 실장

남편과 ‘인생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남편은 단번에 빔 벤더스 감독의 ‘베를린 천사의 시’를 꼽았다. ‘인간의 삶을 긍정하는 영화’라는 게 이유였다. “네 인생의 영화는 뭐야?” 나는 남편의 물음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여러 편의 영화가 떠오르긴 했지만, 남편처럼 딱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었다. 고민하는 나를 보고 남편이 질문을 바꿨다. “그럼,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있어?” 질문을 듣자마자 강렬한 장면이 떠올랐다. 악령에 쏜 소녀가 몸을 뒤로 꺾고 계단을 네발로 기어 내려오는 이미지. 영화 <엑소시스트>의 유명한 장면이었다. 공포 영화를 싫어하는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어, 거기까지. 말하지 마, 생각나려고 그래.” 하며 말을 잘랐다. 신기하게도 딱 한 편의 영화를 꼽는 데는 주저했는데 하나의 장면을 꼽는 데는 망설임이 없었다. 남편에게 ‘베를린 천사의 시’가 감동의 형태로 보존된 것처럼, 내게는 허리 꺾은 소녀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각인되었나 보다.

내 인생의 영화, 내 인생의 책, 내 인생의 여행지 같은, 자신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저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강렬하게 내 존재를 사로잡는 텍스트, 경험, 이미지 앞에 우리는 ‘힘센’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The Ship of Fools 중 일부분. www.en.wikipedia.org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중에서 오른쪽 패널 일부분

회화에도 힘이 센 그림이 있다. 보면 볼수록 수수께끼 같고, 이야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그림이 그렇다. 그리고 그냥 한 번 보면 망막에 새겨질 것만 같은 강렬한 이미지의 그림도 마찬가지다.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진 화가다. 그의 어떤 그림은 골똘히 생각하게 만들지만, 작가의 이름이나 배경지식을 몰라도 “아, 나 저 그림 알아!” 하고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그림도 있다. 아쉽게도 보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해 그가 어떤 의도로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베일에 싸여있다. 그의 출생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450년경. 1450년경이라는 것도, 그가 남긴 말년의 초상화로 ‘음, 얼추 예순은 되어 보이네.’ 이렇게 대략적인 나이를 추정하고, ‘이 그림은 죽기 얼마 전에 그렸겠지? 아마 그럴 거야.’하고 한 번 더 전제한 뒤 나온 연도가 1450년경이었다. 기록의 공백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사람들은 공백을 이야기로 메꾸고 싶어 했다. 보스를 이교 집단인 ‘자유 정신 형제단’ 이나 카타리즘과 연결하기도 하고 정통 기독교 신자로 보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역사적 근거는 오직 도시의 기록과 ‘성모 형제단’의 회계 장부에만 존재한다. 그 기록을 통해 보스가 네덜란드의 스헤르토헨보스에서 살았으며 ‘성모 형제단’ 소속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이 추정이나 가설일 뿐이다.

보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으니, 미술사학자들은 시대적 특징과 그가 살았던 도시를 살펴보면서 그림 해석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 당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스헤르토헨보스 안팎으로 느슨한 형태의 교단인 ‘평신도 형제 자매회’를 비롯해 많은 종교단체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동시에 교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다.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던 때였다. 이 도시는 교회와 상업의 번성으로 신성함과 세속의 가치라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 상반된 가치를 근거로 그림에 대한 역동적인 해석들이 나타난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중 논쟁이 끊이지 않는 대표 작품이 <돌 제거 수술>과 <쾌락의 정원>이다.



Extraction of the Stone of Madness(1501-1505 추정) _
www.wikimedia.org

돌 제거 수술(Extraction of the Stone of Madness)

야외에 네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저 멀리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펼쳐진다. 야유회라도 하나 하고 자세히 보면 ‘어 이거 뭐지?’하고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왼쪽에 서 있는 남성은 깔때기 모양의 모자를 썼고, 테이블에 팔을 괴고 있는 수녀는 머리에 책(?)을 이고 있다. 깔때기 모자를 쓴 남성은 무심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은 남성의 머리를 칼로 찌른다.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내의 머리에서 돌연 꽃이 피어났다! <돌 제거 수술>이라는 제목을 떠올리면, ‘아, 깔때기를 쓴 의사가 환자의 머리를 열고 수술을 하고 있구나.’하고 깨닫는다. 동그란 프레임 바깥으로 그림에 대한 단서를 유추하게 하는 문구가 있다.

Meester snijdt die key ras (Master, rid me of this stone soon)

Myne name Is lubbert das (My name is Lubbert Das).

대가 선생님, 돌을 제거하세요. 제 이름은 루베르트 다스입니다.

이 그림은 서로 다른 해석들이 상충하는 보스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전통적인 해석은 ‘멍청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돌을 제거하면 멍청함이 사라진다는 당대 속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의 머리를 열었는데, 왜 돌이 아니라 꽃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림의 바깥에 제시된 문구는 무슨 의미일까? 왜 돌이 아니고 꽃인가에 대한 설명도 꽃의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테이블 위에 놓인 꽃을 근거로, 머리에서 피어난 꽃을 튤립으로 보는 시각과 연꽃으로 보는 시각으로 나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아무개 A가 소리쳤다. “튤립없다니까. 이건 그냥 당대 속설을 표현한 거야. 왜 돌이 아니라 튤립이냐고? 그건 말이지 16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이 멍청함과 어리석음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딱 맞지. 머리를 열어서 어리석음의 상징인 튤립을 뽑아낸 거지… 게다가 문구만 봐도 그렇다고. “제 이름은 루베르트 다스입니다.” 여기 ‘루베르트’가 네덜란드 문학 속에서 전형적인 멍청이의 이름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잠자코 듣고 있던 아무개 B가 응수했다. “저기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 꽃은 튤립이 아니라 연꽃(lotus)이라고요. 연꽃의 의미는 아시죠? 현명함. 그러니까 광인이나 멍청한 사람의 머리를 열었더니, 오히려 현명한 연꽃이 피어났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문구요? “제 이름은 루베르트 다스입니다. (Myne name Is lubbert das)”에서 ‘lubbert’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맞아요. 거세라는 뜻이 있는 동사 ‘lubben’의 변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오소리를 뜻하는 ‘das’와 합쳐져 거세된 오소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가가 돌을 제거하였다. 내 이름은 거세된 오소리다.”가 되죠. 거세된 오소리는 기존 질서에서 벗어난 자에 대한 은유예요. 이제 그 남자는 애매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직자와 의사라는 기존 질서의 권위자들이 제 마음대로 광인을 규정하고 교정하려는 탓에, 광인은 이제 광인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질서에 순응하는 인간이 된 것도 아니고…”

온전한 인간도, 온전한 오소리(광인)도 아닌 존재. 물론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다. 게다가 꽃과 문구뿐만 아니라 갈매기 모양의 모자와 수녀가 머리에 이고 있는 책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열린 결말이며 아직도 활발히 만들어지는 중이다.



Extraction of the Stone of Madness 중 일부 확대 그림

쾌락의 정원(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수수께끼 같은 보스의 그림은 <쾌락의 정원>에서 절정을 드러낸다.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거대한 삼면화인 이 그림은 왼쪽 패널에선 에덴동산의 모습을, 중간 패널은 세속적 쾌락의 모습을, 그리고 오른쪽 패널은 심판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원죄를 가진 인간이 지상의 온갖 쾌락을 맛보다가 결국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는 묵시록적인 해석을 지지한다. 반면에 왼쪽 패널에 그려진 에덴동

산에서 타락과 추방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는 중앙 패널에서 보이는 온갖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남녀의 모습을 아담파의 종교의식(아담이 원죄에 떨어지기 전의 순진한 상태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난교)으로 해석하며 보스가 아담파에 속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주제와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더라도 이 그림 역시 힘이 세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일상의 감각이 교란된다. 지상의 쾌락 장면은 거대한 과일, 사람보다 큰 새와 물고기 때문에 크기의 감각을 무력화시키고, 기괴한 생명체와 집단의 알몸은 리얼리티의 감각을 뒤흔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질문이 솟아난다. 아니 왜, 청둥오리가 남자에게 과일을 먹여주지? 도대체 저 남자는 왜 항문에 꽃을 꽂은 거지? 거대한 조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은 건가? 아니 저 여자는 왜...

오른쪽 패널은 분위기가 더 과격하다. 사람의 상체를 삼키는 새, 수녀복을 입은 돼지, 류트 현에 꽃힌 사람, 커다란 귀와 칼의 조합, 화염과 어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 우글거리는 인간들의 형상은 낯선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로테스크의 창시자

겹겹의 알레고리로 다양한 해석을 보여주는 <돌 제거 수술>과 강한 이미지로 감각의 균열을 일으키는 <쾌락의 정원>은 둘 다 힘이 센 그림이다. 이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걸까? 주제에서 힘을 찾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질적인 감각 때문일 것이다. 그 감각은 익숙한 감각의 세계와는 달리 당혹감을 가져다주는데, 흔히 이런 경험을 '그로테스크하다'라고 말한다.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1490-1500 추정)_www.wikipedia.org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중에서 중간 패널 일부분

그로테스크는 원래 고대 이탈리아의 건축 장식에서 구불구불한 식물의 덩굴과 동물의 형상이 혼합된 형태를 부르는 말이었다. 하지만 요즘의 그로테스크는 유머가 은폐된 기괴하면서 생경한 것을 마주했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로테스크한 경험의 정도가 다르다. 누구는 <쾌락의 정원>을 보고 ‘그로테스크하다’라고 표현하지만, 또 누군가는 <돌 제거 수술>을 보고 ‘더 그로테스크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로테스크는 주관적 경험의 틀로 봐야 한다. 기존의 감각 체계를 뒤흔드는 사태가 벌어질 때, 당혹감을 느낄 때, 유머러스하지만 무서울 때, 개개인은 ‘그로테스크하다’고 자신의 느낌을 뭉뚱그려 표현할 수 있다. 보스의 그림이 힘이 센 것은 바로 이 그로테스크한 경험을,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The Garden of Earthly Delights 중에서 오른쪽 패널 일부분

누구에게는 초현실주의의 선구자로, 또 누구에게는 무의식의 발견자로 기억되지만, 히에로니무스 보스는 미술사에서 그로테스크라는 경험을 관람자에게 본격적으로 느끼게 해 준 화가이다. 만약 남편이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화가’를 묻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보스”라고 말할 것이다. 허리를 꺾고 계단을 네발로 기어 내려오는 소녀 이미지처럼 내 감각에 균열을 낸 화가임이 분명하니까.

“...그와 비슷한 것은 이제까지 그 누구든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었다.” - 알브레히트 뒤러